



광남일보



 금호타이어, 협력사 간담회...“ESG경영 강화” 설비구매 협력사 100개사 대상 정책 등 공유	 산뜻한 봄 장성서 록의 진수 펼쳐진다 19일 록 페스티벌...와이비·카디 등 출연	 ‘맛있는 산수’의 반전...10년째 교과서 수록 하루 K 작품 2015년부터 중·고미술교과에 소개	 이정후, MLB 타격 지표 상위권 질주 뉴욕 양키스전서 연타석 홈런 폭발
---	---	--	--

조간 제782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음력 3월 18일)

☑ 농촌은 지속가능 생산 ☑ 도시는 안전 먹거리 소비

농민·소비자 ‘원원’...유통 선순환 효과

다 함께 꿈꾸는 행복

② 농협 ‘도농상생’ 공동사업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도농상생 공동사업’이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 협력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소비시장을 보유한 도시의 농축협과 생산기반이 있는 농촌의 농축협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다양한 경제사업을 통해 도-농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14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총 7건의 도농상생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공동운영 투자형 1건, 단순 자본 투자형 2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형 1건,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형 2건, 유통채널 제공형 1건 등이다.

사업 방식도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판매장, 하나로마트, 산지공판장, 주유소 등으로 다양하다.

광주·전남에서는 서광주농협(도시농협)과 화순 농주농협(농촌농협)이 합작해 지난 2023년 3월 문을 연 농주농협 로컬푸드조합문화센터(로컬푸드직매장)가 대표적인 도농상생 공동사업으로 꼽힌다.

센터는 2020년 부지 확보 후 2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광주농협(30억원)과 농주농협(55억원)이 공동으로 85억원을 투자한 도농상생 공동투자 사업(공동운영 투자형)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최



14일 오후 농협중앙회 ‘도농상생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화순 농주농협 로컬푸드조합문화센터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로컬푸드직매장·산지공판장 등 광주·전남 7곳 운영

서광주·화순 농주 등 매출 쑥쑥...문화·경제 전반 ‘긍정’

초다. 센터는 총면적 5544㎡, 건물 면적 2046㎡ 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필품을 할인판매하는 하나로마트, 공동작업장, 힐링플라워, 로컬카페, 공유부엌, 농가교육장 및 체험장, 창고 및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점 첫해인 2023년에는 10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11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12.6%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번 사업으로 소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농촌농협들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

며 공동사업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센터는 올해 복합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로컬푸드 판매를 넘어 로컬 문화·예술·경제 전반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도시·농촌 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농협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모델도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 하남농협과 광양농협·광양동부농협·진상농협·다압농협·광양원예농협 등 5개 농협이 3억6000만

원을 공동출자해 연매출액 230억원의 목표로 광양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광양 매실 판매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상생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휴먼쇼핑, 공영쇼핑, NS쇼핑 등 TV홈쇼핑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광주 송정농협과 영암지역 8개 농협이 8억1000만원을 공동출자해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출범시켰다. 이곳에서는 무화과·고구마·팥고추·멜론·배·단호박 등을 취급한다.

이들 사업장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큰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세월호 11주기’ 참사 원인은...

“선사·선원 안전관리 소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재결
10년 7개월만에 공식 판단
과한 진로변경 복원력 상실

심판부는 선박의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참사는 잘못된 정보와 절차, 업무방식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복원성계산서’와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는 2013년 한국선급으로, ‘운항관리규정’은 같은 해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세월호 화물적재량은 ‘재화증량톤수 3963t, 차량적재기준 승용차 88대, 화물차 60대, 컨테이너 247개’로 틀리게 기재하고, 안내판을 만들어 화물구역 등에 게시했다.

때문에 정확한 화물 적재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거짓으로 관리했다.

심판부는 재결서에서 “세월호 전복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적재와 고박(화물 고정)이 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선회와 경사가 가중되고 외판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세월호의 ‘복원성계산서’는 1077t 이하로 화물량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고 당일 조건 화물량보다 2배 이상 많은 2214t의 화물이 적재됐다. 여기에 적재된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돼 화물이 이동했고 화물 이동이 선체를 기울여지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여겼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육지로 드러남 모습.

‘내란 우두머리’ 尹, 여전히 ‘계몽령’ 타령

첫 공판서 ‘몇시간 사건’...검 “국헌문란”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 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사합의25부(지쿠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의의와 준비 상황

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관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연합뉴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재밌게 배운다!

역사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게시판에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 STORY BRIDGE 스토리브릿지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story01920@naver.com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 30-0807589 • 미니버스 흥겨운 이야기 (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